

美대통령, 56년만에 재선포기...경선승리 후 사퇴는 최초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운데), 차남 헌터 바이든 등 가족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1952·1968년 민주당서 경선 초기 기대 못미치자 물러나 인지능력 문제로 현직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사례는 없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하는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됐다. 미 CNN 방송은 이날 "미국 현직 대통령이 재선 선거운동을 포기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다"고 보도했다. 재선 도전에 나섰던 현직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포기한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1962년과 1968년이 꼽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민주당 소속 해리 S.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1952년에 재선에 도전했으나, 지지율 하락으로 경선 초기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자 그해 3월 "나는 후보 재지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1968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린든 B. 존슨도 재선에 도전했으나 트루먼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결말에 이르렀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에서 베트남 전 반대 기류가 확산하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그해 3월 12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경쟁자인 유진 매카시 상원의원과 표차가 기대보다 적게 나타나자 3월 말 연설에서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1968년 존슨 대통령 이후 56년만에 재선을 노리다가 중도 포기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후보에서 물러났다고 CNN은 지적했다. 트루먼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를 27

일, 존슨 전 대통령의 경우 285일 각각 남겨놓고 재선 도전을 포기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를 183일 남겨 놓고 결단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 이미 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경선에 승리했고,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는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차이가 있다. 즉, 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두고 사퇴한 첫 사례인 것이다. 아울러 인지능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다고 CNN은 덧붙였다. 한편, 1952년과 1968년 두 차례 모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선 포기 선언 이후 다른 후보를 내세웠지만, 대선에서 결국 쓰라린 패배를 맛봤다. 1952년에는 당시 트루먼 대통령 대신 본선에 나선 일리노이 주지사 애들레이 스티븐슨이 공화당 후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와 경쟁을 벌였으나,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의 인기로 밀렸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당선돼 제34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1968년에는 당시 존슨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이후 부통령인 휴버트 험프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으나, 심한 내홍을 겪은 뒤 공화당에 대권을 내줬다. 당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케네디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이 인기를 끌며 기세를 높였으나,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다음날인 6월 5일 암살당하며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민주당은 내부에서 분열됐고, 선거 결과 공화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이 당선돼 제37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 밖에 미국 역사에는 연임을 위해 다시 출마할 자격이 있는데도 이를 시도하지 않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드물었다. /연합뉴스

해리스 바로 선거운동 개시 선거캠프 명칭 변경서 제출

전화 돌리며 지지 호소...밀워키 유세 등 당초 일정 불분명
행보 본격 나설듯 "해리스측 물밑서 몇 주간 조용히 준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발표하면서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카말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출마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 하원 흑인 의원 모임, 히스패닉 의원 모임 지도부 등 200명여의 전화를 걸었다. 나네트 바라간 히스패닉 의원 모임 회장은 통화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100%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하원 내 우군, 상원 의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그의 외부 민주당 단체들과 기부자들도 통화 목록에 있다. 당장 해리스 부통령의 일정은 불확실하다. 그는 23일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선거 유세를 할 예정이었으며, 24일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스에 열리는 한 흑인 여학생 클럽과의 대화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캠프도 캠프 명칭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민주당 전국위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환영해 관련 서류를 변경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지지자들도 움직이고 있다. 다수의 흑인 여성 민주당 당원들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유권자 투표용 고취 활동을 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해리스 부통령 측이 그를 몰아내려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고 대선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몇 주간 조용히 준비해왔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추대할지 새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러야 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오바마 "바이든, 최고의 애국자" 사퇴 지지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최고의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자신의 재임기간 8년간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오바

마 전 대통령은 TV토론 참가 후 초기에 바이든 대통령을 '엄호했으나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용퇴론을 주변에 전하며 바이든 중도하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은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질 바이든, 남편 결단에 '하트'로 지지 표명

손녀 나오미 "나의 할아버지, 우리의 대통령 자랑스럽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에 대해 그의 가족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린 사퇴 성명을 리트윗하고 진한 분홍색 하트 두 개가 달린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손녀 나오미 바이든은 X에 "나는 온 영혼을 다해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한 나의 할아버지, 우리의 대통령 조 바이든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한,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었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는 우리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가족은 지난 달 27일 첫 TV토

론 직후 '바이든 사퇴론'이 분출하자 그가 "계속 싸워야 한다"며 완주에 힘을 실은바 있다. 질 여사는 토론 다음 날 'VOTE'(투표하라)라는 글자가 도배된 원피스를 입고 유세장에 섰고, 지난 8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월링턴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남편이 지금껏 나를 지원해준 것처럼 나도 남편의 선거에 다들기를 할 것"이라고 완주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